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경제]
- WSJ: 미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 방식 바뀐다
- CMNBC: 연간 기준 미 수입물가 7.1% 급등

[미국 금융]
- CNBC: 중동 긴장 고조 가운데 미 국채 금리 소폭 상승

[미국 생활]
- Bloomberg: 마이애미 생활비가 뉴욕보다 높아져
- WSJ: Z 세대 데이트 비용, 부담 느낀다

[중동 전쟁]
- Bloomberg: 이란, “중재국들로부터 충돌 완화 제안 받아”
- Bloomberg: 호르무즈 해협 전면 중단

[오일]
- Bloomberg: 미 주유소 휘발유 가격 4불 돌파…정제 가동 부족
- CNBC: 오늘 월요일 국제 유가는 혼조세

[트럼프 관세]
- YahooFibnance: 트럼프 무역 122 조항 일시 관세 이번주 끝나…새 관세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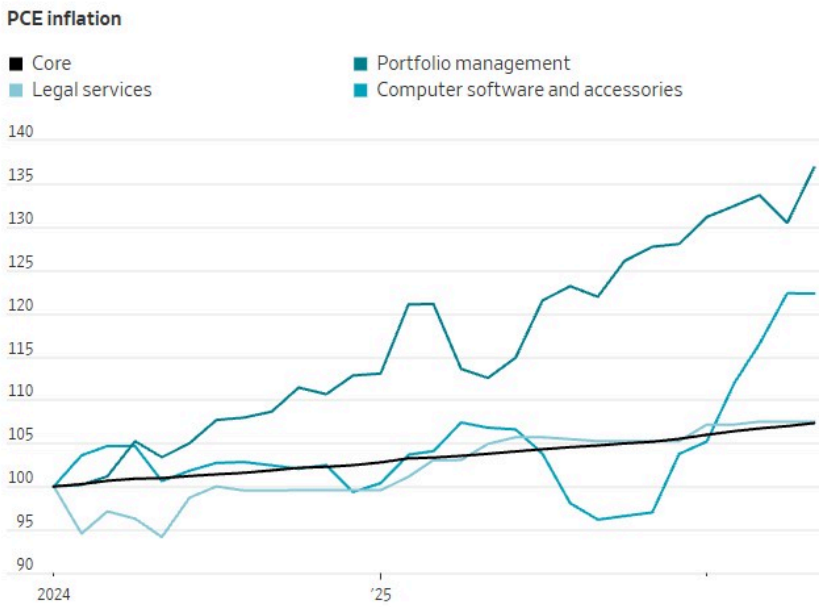
[전기차]
- CNNFinance: 미 2분기 새 전기차 판매, 1분기 비해 20%나 줄어

[오늘의 금융 지표]
- 미 증시 지수, 미국 국채 금리와 주요 환율

[미국 경제]

WSJ: A Statistical Revamp Is About to Lower Inflation, at a Critical Time
미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 방식 바뀐다

- 연방경제분석국(BEA)이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의 일부 항목에 대한 측정 방식을 변경할 계획이다. 더 정확하고 공신력 있는 데이터 소스를 이용할 예정이다.
-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으로 근원 PCE 물가상승률이 기존 방식보다 약 0.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정한다.
- BEA는 이번 변경을 두고 통계의 정확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필요한 통상적인 조정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Note: Core rate excludes food and energy. Prices indexed to January 2024.
Source: Commerce Department

기사

CNBC: Import prices post surprise gain as costs of goods from China hit highest since 2008
연간 기준 미 수입물가 7.1% 급등

- 에너지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다른 항목들이 일제히 오르면서 7월 미 수입물가는 0.3% 상승했다.
- 연간 기준 수입물가는 7.1% 급등하여 2022년 8월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 중국발 수입물가가 0.9% 오르며 2008년 1월 이후 월간 최대 상승 폭을 보였는데, 이는 관세 인상의 영향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기사

[미국 금융]

CNBC: U.S. Treasury yields edge higher as Wall Street monitors Middle East tensions
중동 긴장 고조 가운데 미 국채 금리 소폭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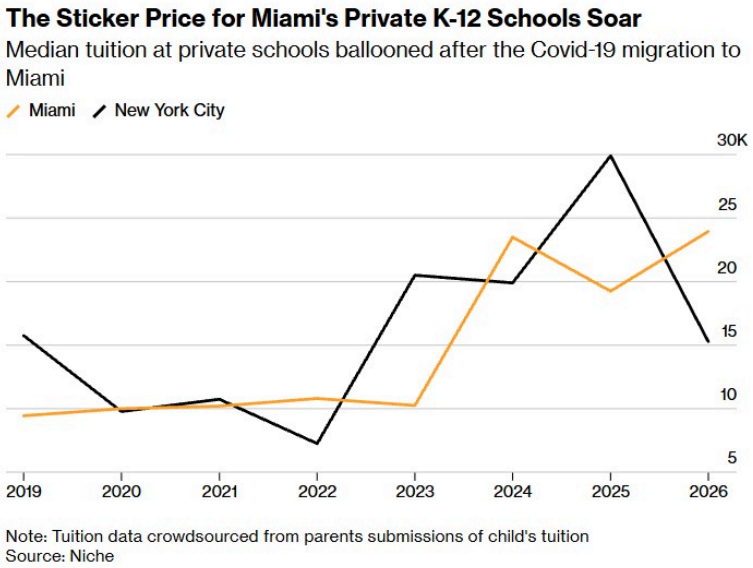
-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월가가 최근 상황을 주시하면서 오늘 월요일 미 국채 금리가 소폭 상승했다.
- 미국 정부 차입 비용의 핵심 기준이 되는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2베이시스포인트 이상 상승한 4.566%를 기록했다.
- 금리 정책을 더 밀접하게 반영하는 2년 만기 국채 금리 역시 2베이시스포인트 이상 올라 4.198%를 나타냈다.
- 만기가 더 긴 30년 만기 국채 금리도 2베이시스포인트 이상 높은 5.087%에서 거래됐다.

기사

[미국 생활]

Bloomberg: Miami Is Losing Its Claim to a Cheaper Cost of Living Than NYC
마이애미 생활비가 뉴욕보다 높아져

- 그동안 맨해튼 고소득자들에게 플로리다는 뉴욕보다 모든 면에서 저렴한 곳이었다. 하지만 마이애미 물가가 급등하면서 이 상황을 바꾸었다.
- 사상 처음으로 마이애미 대도시권 생활비가 뉴욕을 넘어섰다. 2019년 이후 남부 플로리다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36% 급등했으며, 미국 경제분석국(BEA)의 2024년 데이터 조사에서도 마이애미가 뉴욕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 마이애미는 사립학교 등록금, 보험료, 외식비마저 1년 전보다 더 오른 상태다.



기사

WSJ: Gen Z Looks for a Cheap Date
Z 세대 데이트 비용, 부담 느낀다

- 미국의 평균 데이트 비용(한차례 교통비와 식사 등)은 189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5% 상승했다고 BMO 파이낸셜 그룹은 조사 결과 밝혔다.
- Z세대 데이트족의 50%와 밀레니얼 세대 데이트족의 40%는 데이트 비용이 자신들의 재정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부담이 된다고 답했다.
- 또한 연방 통계 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정찬 식사와 간식 가격이 3.7% 상승하며 일반적인 데이트 예산을 압박했다는 것이다.

기사

[중동 전쟁]

Bloomberg: Iran Says Mediators Stepping in After Days of US Clashes
이란, "중재국들로부터 충돌 완화 제안 받아"

- 이란은 미·이 간 무력 충돌을 완화하기 위해 중재국들로부터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다.

- 주요 중재국인 카타르와 파키스탄은 지난달 체결된 임시 평화 협정을 무력화한 호르무즈 해협 충돌(7월 9일) 이전 상태로 양국 관계를 되돌리는 것을 우선 첫 단계로 제안했다.
- 이란 측은 이 제안을 전달받았다고 확인했으며, 이란 내무장관은 월요일 파키스탄을 방문할 예정이다.

기사

Bloomberg: Hormuz Traffic Near Standstill as Dynacom Ships Targeted
호르무즈 해협 전면 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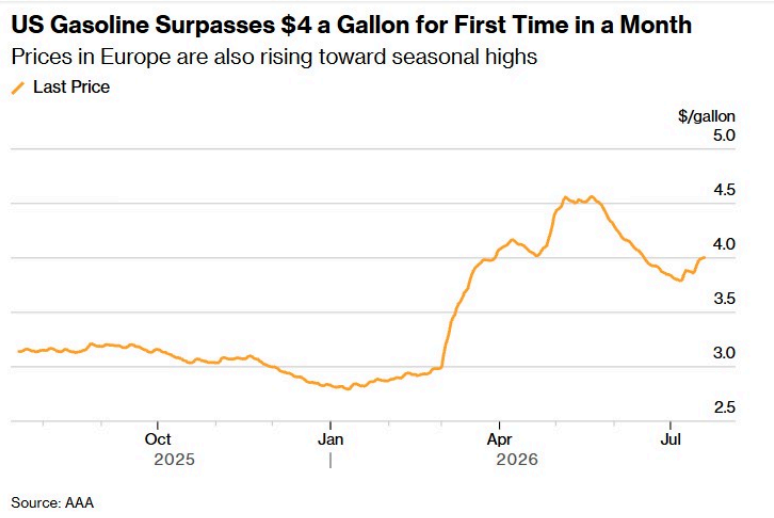
- 이란의 유조선 공격과 미국의 강력한 공습으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항이 전면 중단되었다.
- 해당 해협에서는 그리스 대형 선사 Dynacom Tankers Management가 관리하는 아켈로스(Acheloos)호와 소형 연료 유조선 등 선박 2척이 피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번 공격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페르시아만에서 전 세계 소비자에게로 향하는 에너지 공급망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기사

[오일]

Bloomberg: US Gasoline Tops $4 a Gallon Again as Iran War Escalates
미 주유소 휘발유 가격 4불 돌파…정제 가동 부족

- 중동 갈등이 고조되면서 미국의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다시 갤런당 4달러선을 돌파했다.
- 모건스탠리 분석에 따르면 현재 시장의 '진짜 병목 현상'은 정제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공급 가능한 원유를 제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제 설비 가동 가동량이 부족한 상태다.
- 또한 본격적인 여름철 드라이빙 시즌을 맞아 수요가 비교적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러시아의 정제 능력 급감, 미국의 수입량 감소, 타이트한 재고 상황 등이 맞물리며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기사

CNBC: Oil prices erase gains after Iran says U.S. talks could be pursued based on national interests
오늘 월요일 국제 유가는 혼조세

-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국익 기반의 미·이 협상 가능성을 언급하고 중재국을 통한 메시지 교환 사실을 밝히면서 오늘 월요일 국제유가는 혼조세를 보였다. 투자자들은 예멘 후티 반군이 선포한 사우디아라비아 해상 봉쇄 조치의 영향도 주시하고 있다.
- 9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장중 90달러를 돌파한 후 상승분을 반납하며 0.1% 상승한 배럴당 88.2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 8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중질유 역시 장중 상승세를 뒤집고 0.2% 하락한 82.29달러를 기록했다.

기사

[트럼프 관세]

YahooFinance: Trump's temporary global tariffs are set to expire this Friday
트럼프 무역 122 조항 일시 관세 이번주 끝나…새 관세 추진

- 트럼프 행정부가 임시로 도입했던 10%의 '글로벌 관세' 조치가 이번 주 금요일 만료를 앞두고 있으며, 백악관은 이를 대체할 더 영구적인 관세 부과를 준비하고 있다.
-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무차별적 관세 조치에 위헌 판결을 내리자, 행정부는 150일간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122조를 동원해 임시 대응책을 사용했다. 의회가 이 기한을 연장해 줄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법정시한이 끝나가자, 행정부는 관세를 유지하기 위한 다른 법적 권한을 찾아 나선 것이다.
- 수일 내로 새로운 상시 관세 조치가 발표될 예정인데 행정부는 '강제 노동' 및 '과잉 생산' 조사 결과(통상법 301조)를 명분으로 새로운 영구적인 관세를 추진하고 있다.

기사

[전기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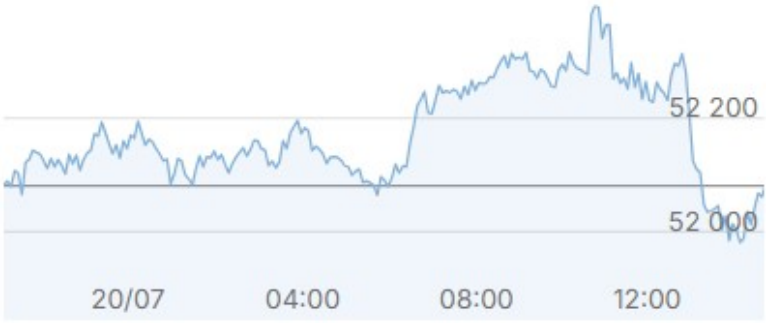
CNNBusiness: US EV sales are down, but not out. Here's why automakers won't pull the plug
미 2분기 새 전기차 판매, 1분기 비해 20%나 줄어

- 미국의 2분기 신규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급감했으며, 주요 브랜드들도 미국 내 전기차 계획을 축소하고 있다.
- 이 같은 전기차 판매 둔화의 핵심 원인은 정부의 지원책 중단이다. 지난해 10월 EV 구매자에 대한 7,500달러 세액 공제 혜택이 폐지되었고, 제조사에 대한 배출가스 위반 벌금 제도마저 없어지면서 전기차 생산 유인이 크게 줄었다.
- 그러나 미국 내 EV 판매는 올해 초보다 개선되는 흐름이며, 글로벌 시장의 호황으로 인해 업체들이 전기차 전환을 완전히 포기하기는 어려울 전망이

다.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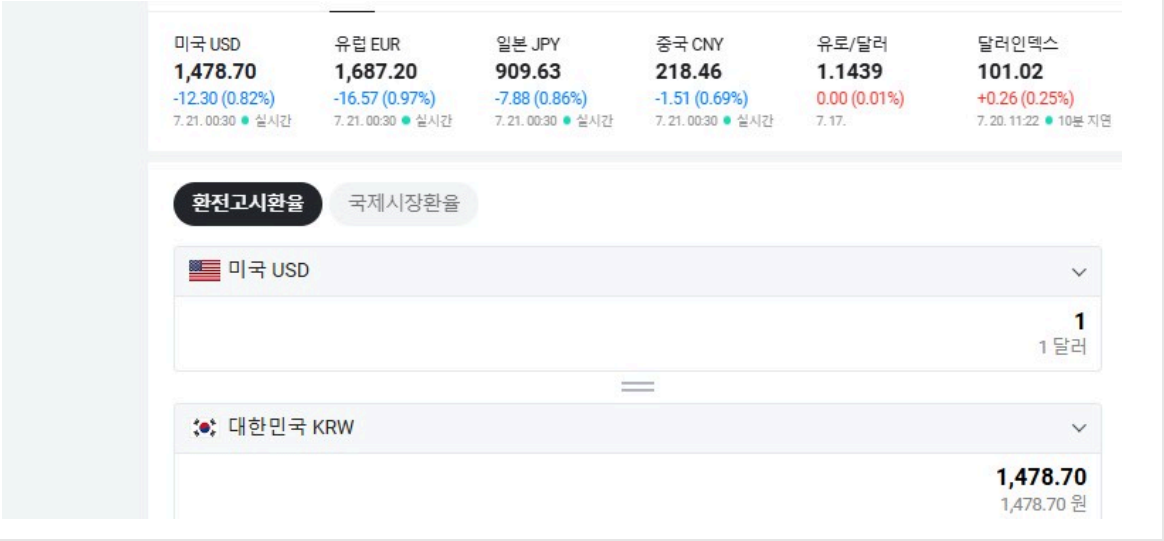
[오늘의 금융 지표: 미 증시 지수, 미 국채, 주요 환율]



US 30	52,045.10	-101.3	-0.19%
US 500	7,483.70	+26.0	+0.35%
Dow Jones	52,051.93	-94.49	-0.18%
S&P 500	7,483.73	+26.05	+0.35%
Nasdaq	25,698.92	+178.68	+0.70%
S&P 500 VIX	17.89	-0.85	-4.54%
Dollar Index	100.827	+0.241	+0.24%

U.S. Treasurys

	COUPON (%)	PRICE CHG	YIELD (%)	YIELD CHG
30-Year Bond	5	-6/32	5.107	0.035
10-Year Note	4.375	-3/32	4.595	0.045
7-Year Note	4.25	-24/32	4.454	0.042
5-Year Note	4.125	-2/32	4.329	0.040
3-Year Note	4.125	-1/32	4.261	0.036
2-Year Note	4.125	-1/32	4.225	0.042
1-Year Bill	0	1/32	4.027	0.032
6-Month Bill	0	1/32	3.947	0.026
3-Month Bill	0	0/32	3.811	0.010
1-Month Bill	0	0/32	3.696	0.000



KOCHAM | 445 Park Ave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